

영어 공용론자의 언어관과 문화

정대현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교수

(가) 문제 제기: 영어 공용론이란 영어와 한국어를 공식(公式)적인 언어로 공용(共用)하자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북거일은 공용론을 처음으로 제안하면서 민족주의, 사대주의, 애국심 등의 가치를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여 논변을 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는 공용론이 주체적이지 못하고 사대주의적이라고 비판하였고, 공용론자는 민족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므로 자신은 개방적 민족주의자이고 이를 반대하는 자는 폐쇄적 민족주의자라고 답한다.

공용론이건 반대론이건 둘 다 일종의 색깔론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인다. 서로가 공동체의 이익을 계산하여 각자의 주장을 한다는 점은 간과하고, 결과를 외부적 관점으로부터 기술하여 핵심적 동기로 덧씌우는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의 논의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공동체의 이익을 계산하는 집중적인 논의가 도움이 될 것이다.

공용론자는 그 이익의 계산 방식을 계산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반대론자는 총체적 시각의 계산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두 입장은 관점의 차이로만 보일 만하다. 그러나 반대론자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건강한 전제들로부터 논의를 전개하는 데 비해 공용론자는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한

다고 하면서 잘못된 전제를 걸고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용론자의 잘못된 전제에 따른 계산 방식을 비판하고 대안적 계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 공용론자의 두 논변 : 영어 공용론자의 많은 논변들 중에서 설득력이 보다 강한 논변들이 있다. 효용성 계산법을 제시하는 메트카프 논변과 언어 선택의 공동체적 자의성에 주목하는 히브루 복원 논변이다. 이 두 논변은 서로 관련된 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독립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별개의 논변들이다. 두 논변은 특정한 언어관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한 언어관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러한 논변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언어관에 대해 음미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변에 주목하는 것은 이 논변들은 논리적이고 개념적이어서 자체의 설득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1) 메트카프 논변 : 복거일은 영어 공용론을 주장하기 위해 메트카프 논변을 제안한다.¹⁾ 메트카프의 법칙(Metcalf's Law)은 “사용자에 대한 효용으로 정의되는 망의 가치는 대체로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것이다. 복거일은 이 법칙을 잘 설명하고 있다. 사용자가 한 사람일 때, 정보 전달 수단은 별 가치가 없다고 한다. 한 사람만이 가진 전화기는 쓸모가 없지만 사용자가 둘이 되고 그 수가 늘어날수록 전화기의 가치는 늘어나는 것이다. 메트카프의 법칙은 정보 전달 수단의 가치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수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을 일반화하고 있는 것이다. 복거일은 이 법칙을 영어에 적용한다. 영어는 국제어로서, 사용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그렇다면 영어의 가치는 증가하는 사용자의 수의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날 것이고 이러한 계산은 영어 공용화를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1) 복거일(1998).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 문학과 지성사. 166-169쪽.

복거일의 메트카프 논변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메트카프 법칙과 영어 사용자의 사실이라는 두 개의 전제로부터 영어 공용화의 당위성을 주장할 정당성은 쉽게 얻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복거일이 메트카프 논변에서 전제하는 언어관은 무엇인가? 그의 언어관은 수용할 만한가? 나는 그의 언어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복거일이 전제하는 것처럼 언어라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이나 넷스케이프 프로그램처럼 단순한 정보전달의 매체라면 복거일의 논의는 형식적으로 정당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용할 것인가 넷스케이프를 설치할 것인가는 메트카프의 법칙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다. 그러나 언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수단만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어떤 어린이가 다음과 같은 논변을 제안하였다고 가정하여 보자: 부모란 나의 세계 연결망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메트카프의 법칙은 수용된다: 나의 부모보다 앞집의 부부가 세계 연결망 체계에서 더 우수하고 효과적이다: 고로 나는 앞집의 부부를 공용부모로 선정하여야 한다.

물론 메트카프 법칙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메트카프 법칙을 적용할 때 고려할 사항은 적용되는 대상이 메트카프 법칙의 적용에 의해 손상 받을 것인가의 여부이다. 그 법칙을 적용할 때 얻을 이득과 손실을 저울질해야 하는 것이다. 언어나 부모는 단순히 연결망의 요소나 체계로 볼 수는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어린이의 메트카프 논변도 부모를 단순한 세계 연결망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한에서는 형식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그러한 연결망의 기능적 역할만으로 규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나2) 히브루 복원 논변: 복거일은 히브루 논변을 제시한다²⁾: 유대인들의 언어는 히브리어이다: 유대인들은 시대에 따라 아람어, 그리스어, 이디

2) 복거일, 앞책, 175-177쪽.

시어, 라디노어를 사용하였지만 1948년에 히브리어를 복원하였다: 유대인들은 언어를 여러 번 가볍고 쉽게 버리고 채택하였다: 언어는 정치적 또는 지성적 이유로 버리거나 채택될 수 있다: 영어는 한국인 공동체가 결정만 하면 쉽게 채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어 공용화는 정당하다.

복거일의 히브루 논변은 처음에 읽었을 때 매우 강력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숙독을 하면, 제시된 그대로는 불완전하다. 제시된 전제들에서 결론에 이르는 데 비약이 있기 때문이다. 영어 공용화 선택 가능성이 영어 공용화 선택 정당성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비약을 극복하기 위한 전제는 “영어 공용화 선택을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복거일처럼 ‘선택 못할 이유는 못 보고 선택할 이유만을 본다’면 그리고 ‘언어라는 것이 가볍고 쉽게 여러 번 버리고 채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의 히브루 논변은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히브루 논변과 비슷한 구조를 유지하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리자의 첫 남편은 에이브이다: 그러나 리자는 인생을 살면서 밥, 찰스, 데이빗, 유진을 차례로 바꾸어 그의 남편으로 맞아 들였지만 결국 에이브를 다시 맞아 들였다: 리자는 남편을 여러 번 가볍고 쉽게 버리고 선택하였다: 남편은 인격적 또는 사회적 이유로 버리거나 선택할 수 있다: 리자가 결정만 하면 퍼크를 쉽게 남편으로 선택할 수 있다: 퍼크를 남편으로 선택 못할 이유가 없다: 고로 리자는 퍼크를 남편으로 선택하는 것이 정당하다.

히브루 논변이 정당하다면 리자 논변도 정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리자 논변에는 문제가 있다. “남편으로 선택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부정적 조건이고 따라서 결혼의 충분조건이 아니다. 이 조건은 리자나 다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 남성들에게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결혼은 한 사람과만 갖는 관계이고 리자의 조건은 특정인을 선정하는 조건이 아니다.

리자 논변이 부당하다면 히브루 논변도 부당한 것이다. 다른 전제들과 “영

어 공용화 선택을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전제로부터 영어 공용화 정당성의 결론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도는 정당하지 않은 것이다. 복거일은 그의 논변의 정당성을 “언어는 가볍고 쉽게 버리거나 채택할 수 있다”라는 의문스러운 전제에 의존하고 있다. 유태인들이 가볍고 쉽게 언어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 “영어 공용화 선택을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명제에서 선택의 정당성을 찾은 것이다. 그리고 복거일은 ‘선택을 못할 이유’라고 할 때의 ‘이유’는 언어를 단순히 의사소통의 전달 매체라고 보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거일은 그의 ‘이유’ 안에 “영어는 한국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세계 해석을 포함한다”와 같은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 같다. 복거일은 언어에 도구적 기능 이외의 역할은 부여하지 않은 것이다.

(나3) 공용론의 도구적 언어관 : 복거일의 두 논변은 특정한 언어관을 전제한다. 언어는 도구적이라는 관점이다. 언어를 메트카프 법칙에 종속시킨 것이나 언어공동체가 가볍고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시각은 그러한 관점을 전제하는 것이다. 복거일은 그의 도구적 언어관을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동료 고종석은 이를 옹호하고 있다. 복거일이 이 주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지만 고종석이 도구적 언어관을 각주에서만 간단하게 제시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³⁾

고종석은 “언어가 인식작용을 일정하게 반영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언어와 정신은 상호 규정적이다.”라고 인정한다. 그의 본론적 논의들과 일관되지 않는 이러한 표현들은 다른 까닭일 수도 있지만 그의 관점을 너무 짧은 지면만을 사용해 압축했기 때문일 것이다. 고종석의 도구주의 논변은 다음과 같이 5개의 명제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관의 언어 종속성을 주장하는 근거들은 빈약하다: 정신은 독립변수이고 언어는 그 정신의 종속변수이다: 정신(지각범주와 인식작용)은 언어의 표면 문법과는 달리 보편성을 갖

3) 고종석(1999). 『감염된 언어』. 개마고원. 179-180쪽.

는다: 언어도 심층구조에서 동일한 문법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언어는 도구 이상의 것이 아니다.

고종석의 도구주의 논변은 여러 가지 주제나 관점에서 음미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한 가지 점만 지적하고자 한다. 모든 언어들이 심층구조에서 동일한 문법을 갖는다면 세계관의 언어종속성은 부인된다고 고종석은 생각한다. 고종석은 세계관의 언어종속성과 언어 다원주의를 동치의 관계에 두고, 개념 언어 통합론에 의하여 자연 언어 도구주의를 지지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고종석의 전략은 온전한 것일까? 칸트도 촘스키도 개념 언어 통합성을 주장하였지만 이들이 세계관의 언어종속성을 부인했다고 하여야 할 것인가? 고종석은 자신의 전략을 다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다) 문화 논리와 언어 기초: 언어가 도구 이상의 것이 아니라는 영어 공용론자의 언어 도구주의는 보다 적극적으로 비판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언어는 도구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한 비판이 되지 못하고 언어가 무엇인가를 보이는 것이 적극적 비판일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 비판의 시도로서 “언어는 공동체 문화의 문법이다”라는 가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언어는 생각이나 삶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언어란 삶의 방식으로부터 독립된 것이 아니고 삶의 단순한 결과가 아니다. 언어는 삶의 방식에 의하여 짜여진 삶의 결 자체이다. 언어를 떠나서 사람 또는 인간 공동체의 삶은 구성되기 어렵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기 위해서 우선 세 가지를 주장하고자 한다.

(다1) 실재의 구성적 경험과 표현의 틀: 중국을 단체로 여행한 적이 있었다. 안내자들은 조선족 대학생들이었고 모두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특정한 두 남녀는 예외적이었다. 두 남녀는 다른 사람과는 한국어를 말하다가도 자기 두 사람 간에는 반드시 중국어로 대화하였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까닭을 물었다. 두 사람이 전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였지만 애인이 된 다

음에는 중국어로 말한다는 것이다. 한국어의 존칭 사용방식이 제한적이고 어색하다는 것이었다.

정장 양복은 착용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정장은 단순히 체온 보온용의 도구가 아니다. 만나는 사람과 장소에 따라 그 날의 활동의 성격에 따라 정장은 삶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장소와 상황에 맞을 때 더 편리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한국어의 존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문맥의 문법에 맞추는 것은 세련된 감각과 예리한 통찰을 필요로 하는 학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정장이 사회 경험의 어떤 틀을 마련하듯이, 언어는 실제 경험의 틀이다. 사람들은 언어를 통하여 세계에 대한 경험의 틀을 갖는 것이다. 언어가 없이는 세계 경험의 내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어린이는 누구나 그가 태어난 사회가 진화시켜 온 언어를 배운다. 한국 어린이는 한국어에 들어 있는 존칭 어법을 배워 한국사회에 특수한 인간관계의 나이나 계층에 대한 경험을 한다. 그러나 미국 어린이는 영어에 들어 있는 어법을 배워 미국사회의 특징적인 인간관계의 평등적 경험을 한다. 존칭어법이 잘못 사용될 때는 억압적이지만 올바르게 사용될 때는 배려적이고 고양적인 인간관계에 들어갈 것이다. 존칭어법의 구조는 잘 사용될 때 배려적이고 고양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그러한 어법을 사용할 때 그러한 구조를 경험하게 된다.

정장이나 존칭어법이 편하고 편리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우리의 삶의 방식 안에 들어와 서로 적응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시적 경험에서의 언어도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동일한 시인이 발표한 시의 경우에도 한국인의 삶의 방식 안에 들어와 있는 언어인가 아닌가에 따라 한국인의 시적 경험은 달라지는 것이다. 미당의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시를 대조할 수 있다.

해와 하늘 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 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우름을 밤새 우렸다. -「문둥이」

…… 倨慢히 휘둘러본 님아 네눈에/ 創生 初年の 林檎이 瀟洒한가//
 임우 다다른 이 絶頂에서/ 사랑이 어떻게 兩立하느냐…… - 「웅계(下)」

위의 두 시가 모두 『花蛇集』에 실린 것을 보아 쓰인 시기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그런데도 두 시가 이렇게 달리 경험되는 것은 사용된 언어가 우리의 삶의 곁에 어떻게 구성적으로 들어와 있는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 소통의 수단이 아닌 것이다. 언어는 삶을 구성하는 직조인 것이다.

(다2) 세계 해석의 창: 언어는 세계 해석의 창이다. 빛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으로 설명하고 역사는 헤겔의 변증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인가? 정의는 롤즈의 분배론으로 만족할 수 없고 영화는 볼타임의 시각론으로 부족할 것이다. 이런 이론들은 모두 세계의 어떤 부분을 특정 문제에 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시도들이다. 그러나 언어는 세계를 일반적이고 총체적인 삶의 문맥에서 해석하는 틀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는 한국인 모두가 공유하는 해석의 틀이고 한국인의 삶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의 총체로 아우르는 구조인 것이다.

한국 어린이와 미국 어린이는 각자의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치 어휘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 어린이는 <좋다, 맞다, 착하다, 바르다, 훌륭하다, 잘한다, 예쁘다, 됐다> 등의 단어들을 배우고, 미국 어린이는 <beautiful, good, true, right> 등의 단어들을 배운다. 두 어린이는 일견 상호 번역될 수 있는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두 언어는 표면적으로 상호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심층적으로 보았을 때, 위의 한국 단어들은 유학, 노장, 불교, 무속의 신앙이나 생활양식으로 빚어진 가치 평가적 단어인 반면 영어 단어들은 희랍신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신앙이나 우주관으로부터 곁과 한 개념들을 나타낸다. 동양적 세계관이 내재적이라면 서양적 생활양식은 초월적 세계의 가정적 가치가 들어 있는 것이다. 한국어의 '좋다'는 삶의 내면으로부터의 평가 단어라면 영어의 'good'은 궁극적으로 초월적 세계에 닿아 있

는 기준으로부터의 평가어이다. 한국어의 ‘장생’이나 ‘윤회’는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영생’은 최근에 서양어에서 번역된 단어이다.

한국어와 영어가 세계 해석을 달리하는 또 하나의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영어의 ‘body’와 ‘mind’는 이원론의 구조에서 구성되고 이해되고 사용되어 온 역사를 갖는다. ‘body’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므로 가변적이지만, ‘mind’는 실재 세계의 질서를 나타내는 이성의 작용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것이다. 서양의 이원론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초월적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몸’과 ‘마음’은 영어의 두 단어의 번역어로 사용될 수 없다. 두 한국어 단어는 이원론이 아니라 심신불이(心身不二)라는 음양적 질서의 관계에 들어 있는 두 요소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은 독립적인 두 실체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두 요소이다. 마음 없이 몸이 있을 수 없고 몸 없이 마음이 있을 수 없다. 신체성이란 ‘생각하는 몸’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낮빛이나 몸짓은 한국 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구조의 신체 언어를 구성한다. 그러나 ‘생각하는 몸’이라는 한국어는 영어로 그 뜻이나 생각을 번역할 도리가 없다. 어떤 시도도 자기 모순적인 함정에 빠진다. 이원론의 서양 언어의 전통 때문이다. 최근 들어 서양 언어들에 대해서도 메를로 폰티와 그 외 몇몇 사람이 이원론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서양의 신체언어란 서양 언어의 표상이나 번역으로서 이해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다3) 언어 유일주의와 문화 기여 : 인간 문화는 상이한 여러 전통으로 말미암아 풍부해진다. 문화는 전통적으로 윤리나 부 또는 고급스런 인공품에 의해 규정되어 왔지만, 이제는 삶의 양식이라는 일반적 성질에 의하여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삶의 양식도 인간과 세계와의 특수한 관계에 대한 고유한 이해를 드러내고 이것은 소중한 인간 경험이라는 관점이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로서의 삶의 양식이란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세계를 경험하고 해석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활동들의 체계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삶의 양식

은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언어적이다. 생활 양식은 언어에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은 또한 언어에 의해 구성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문화는 언어의 문법이다'라는 가설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인간 문화가 하나의 국제어로 구성된다면 문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문화는 단일한 생활 양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인간 통합으로 규정될 수도 있지만 또한 획일적 생활 양식으로도 해석된다. 세계의 맥도널드화(MacDonald化)는 바람직한가? 모든 게임들을 하나로 통합한다면 효과적인 것인가, 풍부해질 것인가? 모든 언어를 하나로 통합한다면 효과적인 것인가, 풍부해질 것인가? 문화 기여의 논리는 다름의 창의성에서 촉발된다는 명제를 기초 학문의 구조로써 제안해 볼 수 있다.

기초 학문이란 인간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의 활동이다. 인간이란 일차적으로 자연적이지만 또한 사회적이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지만 또한 독립성을 갖는 한에서 개인적이고 항상 다른 가능성을 꿈꾸는 인문적 특징을 갖는다. 기초 학문은 다른 세 분야에서의 물음을 묻지만 그러나 그 물음들이 근원적이기 때문에 결국 서로 만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인간 이해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기초 학문의 물음의 근원성은 기초 학문의 현재 상황의 역설의 원인일 것이다. 기초 학문의 물음의 근원성은 한편으로 기초 학문의 중요성을 가리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현실적 유용성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개발도상의 국가나 사회는 거의 모두 기초 학문의 이러한 역설적 상황에 처하여 있다. 개발을 한다는 것은 선진 문화를 복사한다는 것이고 앞선 사회의 따름이[從者]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복사문화나 따름이[從者] 활동은 세계 문화에 기여할 수 없다.

이러한 기초 학문 논변이 시사하는 바는 중요하다. 세계 문화는 당대의 여러 공동체 문화가 다름수록 풍부해지고 복사적일수록 빈곤해진다는 것이다. 결국 세계 문화의 논리는 과학의 논리와 궁극적으로 같다는 것이다. 과학이 가설 비판을 통하여 확장되고 성장되듯이 인간 문화도 다름의 가능성의 제안을 통하여 풍부해지는 것이다. 과학이 비판 정신의 독립성과 창의성에 의하여

발전된 것처럼 인간 문화도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다양한 공동체들의 기여에 의하여 발전되어 온 것이다. 과학이 언제나 가설의 반박 가능성에 열려 있듯이 인간 문화도 다름의 가능성에 열려 있고 이 다름을 환영해야 하는 것이다. 독단적 과학자는 과학의 개방성에 불편하듯이, 획일적 문화론자는 문화의 다름에서 감격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라) **맺는 말** : 지구촌은 시간 공간적으로 점점 좁아지고 있지만 개념 공간적으로는 점점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이다. 현대 사회의 규정 조건이 연결성과 다원성이라고 한다면 그 경향성은 그 조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도 이러한 경향성에 반대하여 획일성이나 배타성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동체는 연결되어 있지만 다원적이어야 하고, 다원적이지만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어 말살 정책으로 일본식 성명 강요(소위 창씨개명)까지 시도하였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언어 질서로의 진입을 의미했다. 개명이 자율적일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개명이 외부로부터 강요되었을 때 그 폭력성은 절정에 이른다. 개명 강요의 폭력은 자백을 받기 위한 고문 따위의 폭력에 비할 바가 아니다. 고문은 인격성이 전제된 자백을 향한 폭력에 불과하다. 그러나 외부적 개명은 “너의 독립적 인격성은 수용할 수 없다, 너는 나의 질서에 종속적 존재이어야 한다”라는 인격거부의 폭력이다. 제국주의자는 자신의 언어 질서가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우길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그 언어 정책으로 세계를 제패했더라면 세계 문화는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언어가 단순한 연결망의 도구라면 일본어 단일주의를 어떻게 비난할 수 있을 것인가?